

마당놀이 '쾌걸박씨'

마당놀이 전문극단 미추가 올해도 '쾌걸박씨' (배상식 작·손진책 연출로 관객들을 장충체육관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번 작품에는 학력위조, 신장아·변양군 사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대통령 선거 등이 '풍자감'이 됐다.

'쾌걸박씨'는 고전 '박씨전'에 고대 그리스 희극 '리시스트라테'를 섞었다. 병자호란 직후가 배경인 이 마당놀이는 이시백(윤문식)이 빠웠는 쇠고기를 수인하라고 강요하는 청나라 칙사를 쇠뿔로 두들겨 패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박씨(김성녀)가 청나라로 가 여자들의 성(性)파업을 일으켜 전쟁을 막는다는 이야기다.

대기업 관련 비리도 빠지지 않는다. "수십만장씩 해쳐먹는 큰 도둑놈들이야 아무 탈 없지. 건드리면 국가경제에 영향이 어찌나 뭐라나. 그것들은 꼭 재판받을 때만 되면 없던 병도 만들어 활쳐어 타고 나타나네..."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이 무대에서 신명나게 노는 뒤풀이로 막이 내린다. '쾌걸박씨'는 12월 22일까지 공연된다. (02)368-1515 김주일 기자



허허당 스님이 본 '화엄세계'展

12월 22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열려

"밤인가 해서 눈을 뜨니 밤이 아니요 낮인가 해서 눈을 뜨니 낮이 아니로다. 아 나는 세월 맨 끝 뒷 모퉁이에서 무(無)의 파편 하염없이 토하며 윤회의 사슬 뒤처지며 한 바퀴 생사의 꿈을 회롱 하노라."

-허허당 스님의 '새벽 분황사 중에서'

동자승의 이미지를 활용해 독특한 선화를 선보여온 허허당 스님이 12월 22일까지 서울 서간동 법련사내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전시명은 '허허당이 본 화엄세계- 천년의 세월을 씻고'이다. 허허당 스님은 19세 때 출가한 후 1983년부터 선화에 몰두해왔다. 이후 한지에 먹으로 작은 동자승들을 점점이 그려넣어 화면을 채우고 그 사이 사이에 색을 칠하거나 농담을 조절해 연꽃, 불탑같은 불교적 이미지를 형상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7년전 스위스 취리히 전시회 때 선보인 '10만 동자승'은 전유법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집을 찍어놓은 것처럼 빼곡한 동자승들을 배경으로 한가운데에 부처님의 형상을 실

루었으며 걸친 이 그림은 당시 국내에서 '법력의 극치를 이룬 역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향훈이라는 법명으로 수행하던 그는 '도는 구하고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오는 것'이란 깨달음을 얻고 이름을 허허당(허허)이라고 바꿨다.

이후 선방을 뛰쳐나와 지리산 벽송사와 인국사 등에서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의 수행은 하안 여백의 한지와 붓 한자무로 이뤄진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수십만 동자승은 범종과 풍경을 만들고 우당바다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그에게 선화는 "존재의 흐느낌대로/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무심해 쪽쪽 그려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나온다고 스님은 생각한다. 스님의 끝없는 창작열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휴유암'이란 두세 평 남짓한 진저 토굴(기)에서 두문불출하며 선화에만 몰두해 왔다. 그 결과물들을 이번 전시에서 쏟아내 선보인다. '진등' '활' '존재의 기쁨' '무심' '고요한 비명' '저물 무렵의 침상대' 등 50여점이 이번 전시회에서 벽에 걸린다. 스님의 그림은 얼핏 보면 평화 같다. 그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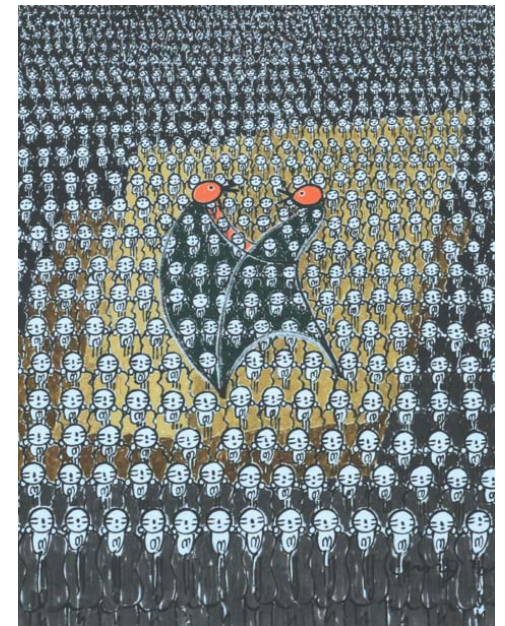
생명의 축제

정교하다는 느낌이 든다. 최소한 스님의 작품에는 세밀로 형상화된 수많은 동자승들이 등장한다. 작품마다 장엄하다.

또한 동자승의 크기로 원근이 조절되는 독특한 화풍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화면에 채워진 수 없이 많은 동자승의 숫자만큼 수행의 깊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불일미술관장 보경 스님은 "화폭에 넘쳐나는 수(數)의 향연에 경이롭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홀로 있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하듯이 허허당 스님 그림의 진정한 매력은 더불어 채워 놓은 동자승들로 하여금 꼭 들어찬 일심동체를 이루어 장엄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수묵의 흑백 경계를 넘어 색을 조화롭게 사용한 이번 전시회는 한동안 긴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02)733-5379 김주일 기자



춤추는 평민

고은사진 미술관, 개관 기념展

구분장 사진전



불교 예술은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도구로 담아내며 보여주고 또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것은 부족하다. 고은문화재단은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이런 현실의 답답한 숨구멍을 띄우는 역할을 해왔다. 영상예술 중 하나인 사진을 통해 불교와 지역문화와 아우르는 기회를 만들었다.

12월 1일 개관한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재규)이 그것이다. 고은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이번에 개관한 미술관은 부산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앞으로 고은사진미술관은 국내외 유명사진작가들의 전시기획, 신인작가 발굴 및 지원, 사진 문화의 대중화와 사진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이기도 한 이재규 관장은 "부산은 국제영화제 및 불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있다"며 "지역 불교 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행사를 아우르는 기획을 선보일 것이다"고 미술관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개관 기념으로 '구분장 사진전'을 기획했다. 구분장 사진은 언뜻 보면 낯고 낯아서 힘없이 갈라져 버린 오브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새 것으로의 과거와 당당한 현재 그리고 소멸될 미래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사진의 본질인 시간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는 백자(vessel), 비누(soap), 바다(ocean), 그리고 오브제(object)로 구성됐다. 사진전은 내년 1월 18일 까지이다. (051)744-3924 하성미 기자

문화소식

△니르바나 '제8회 테마음악회 '화엄경' 읽는 풍경'

12월 13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2월 13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여덟번째이야기- 테마음악회'를 연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출연해 '화엄경' 읽는 풍경'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총 3부로 나뉜다.

1부는 '세상의 모든 꽃 <화엄경>에 대하여'를 주제로 '화엄경'의 개괄적 설명이 이어진다. '꽃을 피우는 보살들의 실천행'을 제목으로 한 2부에서는 '보현보살' '문수보살'에 얽힌 이야기를 본각 스님이 재미있게 들려준다. 마지막 3부는 '화엄에 얽힌 설화 이야기'다. 선재동자의 구법순례, 의상 대사와 선묘 이야기, 보현행원과 균여 대사의 향가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각 부 사이사이에는 드라마 황진이와 주제곡인 '꽃날' 등 니르바나의 클래식 연주와 국악 공연이 마련된다. 참가비 1만원. (02)718-4599

△최두석 교수, 제2회 불교문예작품상 수상

최두석(52·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사진) 시인의 '투구꽃'이 현대불교문예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시상하는 제2회 불교문예작품상을 수상했다.

현대불교문예협회는 "'투구꽃'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를 점검하며 불이(不二)의 세계관을 형상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불교문예작품상은 한 해 동안 <불교문예>를 통해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상식은 12월 28일 오후 6시 인사동 아라리오 가든에서 열린다.

△법련사 불일미술관 12월 22일 송년음악회

법련사는 12월 22일 오후 2시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2007 송년음악회'를 연다. 작곡가 김희경씨가 지휘하는 오느를 국악관련악단의 연주와 함께 강효주(국립국악원 경기창), 최진숙(국립국악원 남도창), 한정일(테너) 등이 무대에 선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될 이번 음악회에서는 김희경 단장이 해설을 곁들이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02)733-5379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20



사불산 윤필암

윤필암(潤筆庵) - 문경 사불산에 있는 비구니암자로 청담 스님의 둘째따님인 묘연 스님의 출가처.

부처님은 山頂에 누워 계시고 법당엔 산새가 물어나온 조각구름 뿐.

어디인가 옛된 여승 파랑에 삭발하던 날 기어이 눈물을 떨구 자리는.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 수평형이며 연도가 3배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긴행타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위-아,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화실이 크기 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 롬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천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할수록 연락바랍니다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www.twotwocom.co.kr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추원관리/회원관리/영기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두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무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운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